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맥추감사주일]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01장 다같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은혜 축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요한복음 6장 1-13절 인도자

- | | |
|---|---|
| 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
편으로 가시매 | 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
| 2.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 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 |
| 3.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
으시니 | 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
| 4.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
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
|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
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
| 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
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 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 |
| 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
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 대로 주시니라 |
| | 12.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
라 하시므로 |
| | 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
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

설 교 “예수님의 감사”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7월 되게 하옵소서.
2.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꿈의 정원과 청년부에게 은혜로운 여름을 주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감사

요한복음 6:1-13

이 세상에는 뜻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를 놀라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주 심해서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놀라워하고 감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의 기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점심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쫓은 무리들이 주린 가운데 그들에게 줄 떡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그를 쫓으면 기적과 놀라운 평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보게 되리라고 믿고 있던 그들이 실제로 맞닥친 것은 떡의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그들이 가진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왔는데 오히려 떡의 문제가 가장 큰 비중으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성인의 의식을 조사해보니 그 의식의 70%가 돈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현실, 죄인들이 온갖 향락을 누리고 있는 반면 우리는 나누고 섬기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때 자신도 모르게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 생선 두 마리.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방법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에게 감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감사하세요. 그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의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십시오. 없을 때, 빈 손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진지하게 감사하십시오. 이 주님의 기적을 배우고 함께 섬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구합니다.